



관심집중 김기식(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식 공방 격화... 더 꼬인 국회

한국당, 방송법과 금감원장 거취 정리 양자택일 압박

국회 표류 장기화 조짐...사개특위 2개 소위 구성 합의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으로 4월 임시국회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하면서 정국 상황은 더욱 꼬이는 모습이다.

여야 의사일정 합의 자체가 불발되면서 9일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불발된 데 이어 10일부터 잡혀있던 대정부 질문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나 방송법 대안을 제시했지만, 통과가 마련에는 실패했다. 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의 면담은 아예 성사되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잘 안 된다. 방송법 개정안 대안을 가져오라 해서 제안했는데 그것을 못 받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방선거와 개혁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물론 이번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여권에서는 미세먼지 관련법,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관련법 등 시급한 민생법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고리 삼아 4월 임시국회 보이콧에 나선 보수야당이 전선을 김 원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민주당 입장에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가 전날 김 원장의 외유성 해의 출장 의혹에 대해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발표를 내놓은 이후 한국당 등 야당은 더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정국 격차는 당분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한국당은 방송법 개정을 확실하게 김 원장 거취를 정리하는 양자택일을 하라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나서 김 원장 공격에 가세했다.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번 인사의 검증을 담당했던 모든 인사가 책임지고 사임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며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여야 간사들은 10일 특위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 등 4개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30여 분간의 회의에서 2개 소위 구성을 마쳤다. /임동욱기자 tuim@

“전두환 청와대 근무 이용섭 사퇴하라”

강기정 후보 캠프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 사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해 같은 당 강기정 예비후보 측이 “광주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기정 후보 통합경선대책본부는 10일 “시민사회가 서주석 국방부차관의 5.11 위원회 활동 등 5·6공 당시 과거 활동 전력을 문체 삼아 사퇴를 요구하고 상경투쟁에 나섰다”며 “같은 시기, 전두환 정권의

사정부서에서 복무한 이용섭 후보 또한 당시에 무슨 업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정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욱 통합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 차관보다 앞서 공직사회를 사찰하고 국민의 민주적 의지를 억압하는 역할을 했던 사정수석실에 근무한 이용섭 후보는 자신에 대한 '군사독재 부역자' 비방은 민주정부 비판”이라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서 차관에 대한 비판도 민주정부 비방인가”라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울 김문수·세종 송아영 한국당, 시장후보 확정

자유한국당은 10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서울시장 후보, 송아영 부대변인을 세종시장 후보로 각각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 후보와 김 전 지사,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겨루는 3자 대결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두 사람에 대한 추대 결의식을 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

6·13 선거 현장

구청장 후보

임택 “동구 인쇄의거리 옛 명성 찾을 것”



임택 더불어민주당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10일 “도시재생뉴딜사업 재원을 투입해 활력을 잃은 동구 인쇄의 거리가 옛 명성을 되찾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어려움에 처한 인쇄의 거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로 서민경제와 밀접한 동네 골목상권을 살리는 길이다”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활성화로 랜드마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침체한 인쇄의 거리를 지역의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재생뉴딜사업 재원을 투입하여 비좁은 길과 낡고 오래된 건물 등을 현대화하는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특화거리 조성으로 인쇄산업의 제2의 부흥기를 가져오겠다”고 덧붙였다.

서대석 “장애인 목욕탕·체육대회 신설 앞장”



서대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0일 “한 사회의 복지 척도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수준에 달렸다”며 “서구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과 장애인 체육회 신설 등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서 후보는 “가정 내에 목욕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신체적 이유 등으로 대중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 사업에서 전국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는 서구에 아직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없는데 이를 건립해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체육회가 결성돼 제대로 운영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병내 ‘도시농업활성화 방안’ 발표



김병내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0일 도농복합지역인 남구의 도시적 특성을 살려 도시농업을 늘리고 공영농장을 확대하는 ‘도시농업활성화 방안’을 내놴다.

김 후보는 공동체 텃밭을 확대하고, 세대별, 계층별로 맞춤형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농업인 수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 3곳인 공영농장을 확대해 도시농업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도시농업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온난화, 열섬화 방지, 생태계회복, 공동체복원과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광주 도시농업을 선도 하겠다”고 밝혔다.

최진 “남구 국제 원두커피 축제 열겠다”



최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0일 “커피 주요 생산국의 농장주들이 직접 남구를 방문해 커피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남구 국제 원두 커피 축제’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광주천 노천카페, 뽕진 마을, 백운광장 상암지역 등 지역의 카페와 골목, 문화 공간을 활용한 축제를 통해 남구 지역 상권의 발전을 꾀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생산자 중심으로 소개하여 국내 다른 도시는 물론 중국, 일본 등의 해외 커피 마니아, 딜러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 원두커피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앙림동, 사직동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을 홍보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인,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배식봉사



문인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10일 북구 동림동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사랑의 점심나누기’ 무료급식행사에 참석, 600여명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 활동을 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사회,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고, 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해 자활복지 구현,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각지대가 없도록 살피서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첨단 3지구, 4차산업 중심으로”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10일 “첨단 3지구를 4차 산업 중심의 경제 구역으로 적극 육성해 지역 청년 인재의 취업난 해소와 미래 광주 발전의 주축 지역으로 복구를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학계, 기업인, 시민단체 등 산학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4차산업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해 4차 산업 컨트론타워를 구성하고 각종 사업을 접목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면서 “광산구, 장성군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첨단 3지구와 연계된 지역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4차 산업을 적극 수용해 지속성장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오섭 “공·폐가 활용 커뮤니티 공간 조성”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10일 “700여개의 공·폐가를 활용해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이나 젊은 청년들이 집값 걱정, 집세 걱정없이 마음 편히 살며 일할 수 있도록 세어하우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빈집을 배움의 갈증을 해소하는 지식 창작 공간, 함께 웃고 즐기는 문화예술 상상제작소, 마을기업 등의 활동으로 주민의 삶과 살림살이를 여유롭게 만드는 지역공동체 경제발전소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복합문화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해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배움에 대한 갈증과 삶의 여유를 갖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지역의 거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삼호 “선거법 위반 단연코 없었다”



김삼호 광주구청장 예비후보는 9일 광주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불법행위는 단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르면 공단 임직원은 당원으로 입당할 수 있고, 당원을 모집할 수 있다”며 “입당한 공단 직원은 일반이고, 이들이 모집한 인원이 500여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 모집의 대가로 공단직원에게 나물을 선물한 것이 아니다”며 “2015년부터 광산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숙주나물을 기부 받아왔는데, 검찰이 지난해 공단 퇴직 이후의 기부행위만 문제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 당당하게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